

M.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강 프루스트의 삶

1교시 <오버코드와 노아의 방주>

기억과 망각의 문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트앤스터디에서 세 번째로 연속해서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 마르셀 프루스트를 가지고 좀 길게 강의를 진행해야겠습니다. 2회 보강 들어가서 10회로 하겠습니다. 프루스트의 예술론들이 이 책에서 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제 개인적인 관심) 또 프루스트의 훌륭한 독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독서의 새로운 영역을 전개했던 몇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커티스라는 사람, 사실 철학적 배경은 아니고 프루스트 전공 문예학자입니다. 또 벤야민이 굉장히 프루스트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벤야민의 키워드 중 하나인 기억이라는 문제, 벤야민의 철학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기억(술)입니다. 기억전문가입니다. 과거화 된 파샤주를 기억하는 방식, 벤야민이 기억의 문제를 새롭게 접근하게 된 계기가 바로 마르셀 프루스트의 이 책 두 번째 권인 「꽃피는 아가씨들의 그늘 아래서」인데요. 알베르틴을 질베르트를 만나는 과정에서 바로 그 부분을 벤야민 스스로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기화가 되어서 역사철학적인 측면에서 기억의 문제를 프루스트와 생산적 비판작업을 통해서, 망각의 문제(상당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저도 그렇고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이 책이 사실 기억의 문제인지, 망각의 문제인지를 판단하기 참 어려운데요. 개인적으로 망각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물론 기억과 망각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망각을 했으니까 기억을 하는 거니까요.-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 생산성을 갖는지의 문제는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작품을 꼼꼼히 읽어보면 기억과 망각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알 수 있습니다. 기억을 얘기하기 전에 전제조건이 있는데, 무의지적 기억과 의지적 기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지적 기억은 망각되지 않았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무의지적 기억의 전제조건은 망각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기억입니다. 그렇게 보면 프루스트의 기억이 무의지적 기억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전에 망각이 전제로 있다는 사실을 접고 들어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들을 안 했어요. 그 점에서 벤야민의 시선이 독특한 것입니다.

미완성 작품,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와 독자로서 다시 쓰기

또 잘 알려진 것처럼 폴랑 바르트도 프루스트의 훌륭한 독자였고, 「에크리튀르」라는 개념을 가지고 프루스트의 작품을 끝낼 수 없는 텍스트로 보려 했습니다. 사실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작품은 미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죽기 직전에 여기서는 프랑수아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셀레스트라는 하녀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드디어 내가 마지막 풍크툼을 찍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죽습니다. 후반부에 들어가면 앞에서 보였던 세련됨과 섬세함이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총 7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알베르틴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간헐 여자, 도망간 여자 부분이 중요하고, 마지막 권에 다시 찾은 시간이 있는데, 프루스트는 이 부분을 원고 상태로만 남겨 났을 뿐 정서로 출판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자가출판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정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책상 서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수없이 고쳐야 하고 다시 써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세 권은 출판되지 못했어요. 앞부분, 특히 1권이나 2권(꽃피는 그늘 아래서)은 콩쿠르상을 받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노력과 프루스트의 거의 광적인 글쓰기의 노력이 빈틈없이 전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많이 흐트러져요. 건강상의 위협과 거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글쓰기라는 건 원래 죽음과의 맞대결이죠. (요즘은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글을 왜 쓸까요? 『천일야화』 왜 썼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얘기를 다시 발견하지 못하면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글쓰기는 죽음과 끊임없이 대치하는, 죽음과의 싸움이고, 회화를 보면 <죽음의 무도>에 관한 그림들이 많잖아요. 말기에 오면 프루스트가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었기 때문에 끝을 내느냐 안 내느냐 이것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글쓰기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마 그 부분을 가지고 독자의 의무가 있다면 다시 쓰는 작업이 독서 행위가 되겠죠.

프루스트 작품의 중요한 독자들

어쨌든 중요한 프루스트의 독자들이 있어요. 들뢰즈의 <프루스트와 기호들>이라는 아주 빼어나고 독특한-들뢰즈의 생성철학 범주에 있지만-글이 있어요. 카프카에 대해서 쓴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빼어난 독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몇 다루어 보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 보면 프루스트의 독자들 부분을 좀 줄이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프루스트의 독자들만 따로 모아서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폴 발레리 같은 사람.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블랑슈. 사무엘 베케트. 베케트가 한 때 프루스트의 비서였어요. 짧긴 하지만 프루스트에 대해서 쓴 좋은 책이 있습니다. 부분만 모아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제 수업 스타일이 좀 늦는 편인데,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나톨 프랑스. 저는 좋은 작가라고 생각하진 않습시다만, 그 작가가 프루스트와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프루스트를 많이 도와줬어요. 프랑스의 국민 작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살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나톨 프랑스에게 불륜의 연인이 있었습시다.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아나톨 프랑스가 열고 있던 살롱이 있었는데, 거길 들락날락하면서, 프루스트가 드나든 살롱이 몇 군데 있습시다. 그 중 하나가 그의 연인이 열고 있었던 부르주아 살롱, 하나는 비제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학교를 같이 다녀서 친숙하고 이 책에서도 등장인물화 되어 나오는데요. 비제의 부인이 열고 있던 살롱이 있었습시다. 또 하나는 마틸드라는 귀족부인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게르망트라는 공작부인이 있죠. 이 살롱이 귀족 살롱이에요. 살롱은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귀족 살롱, 하나는 부르주아 살롱입시다. 프루스트가 사실 스노비즘적인데요. 속물. 나중에 속물을 문학화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나올 수 있었습시다. 속물도 어떤 속물이냐가 문제죠. 스완 같은 사람은 완전히 속물에서 시작해서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었는데, 속물이 되어서 오데트에게 빠져서 불쌍하게 한 일생을 버린다면, 사실 스완의 자식이라고 볼 수 있는 마르셀이라는 화자는 스완이 빠져든 늪으로부터 문학이라는 영역으로 빠져나오죠. 그게 큰 차이입시다. 살롱도 한 부분으로 다루어 얘기해 보겠습시다. 살롱의 공간을 빼놓을 수 없어요.

살롱이라는 공간

어떻게 보면 기억의 문제가 참 중요하긴 한데, 저는 살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입시다. 여자들의 암투. 특히 부잣집 여자들 모이면 암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갤러리를 중심으로 모이는 부잣집 아줌마들이 있을 텐데, 그 세계 볼 만할 거예요. 스놉들이죠. 허영의 시장, 거짓말, 질투, 암투. 그것만 있으면 볼 게 없지만 진짜 볼 만한 건 세련됨입시다. 스놉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허영, 명품 같은 것도 허영이 만드는 놀라운 생산력이잖아요. 그 허영을 좇아 명품을 찾으려 안 되고요. 명품을 통한 허영의 생산력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프루스트가 그 작업을 했습시다. 스놉이 되었다가 스놉을 통해서 배운 것을 스놉을 강화하는 데 썼던 게 아니라, 스놉들로부터 빠져나와 문학의 영역으로 옮기려고 했습시다. 그것이 뛰어나죠. 우리가 타락하지 않으면, 사실 모든 천사는 타락천사인데, 순수 이데올로기는 위험합시다. 순수한 것이 있는 것처럼, 비순수화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것 순 거짓말, 이데올로기예요. 제가 볼 때는 세상이 그런데, 파란 잉크 물로 다 차 있는 웅덩이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얀 얼굴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소망이죠. 문제는 파란 잉크라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파란 잉크를 연구하는 거죠. 그 연구를 통해서 파란 잉크가 아닌 다른 잉크가 있는 어떤 샘을 우리가 상상하고, 있어야

하는 필연성을 발견해내고,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구축하려는 비판정신, 이런 것들은 타락에서 나오고 비순수에서 나오는 거지 천국이나 순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광고에나 있지. 마르셀 프루스트가 그런 걸 철저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앞으로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이 책의 번역에 대하여

일단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책 읽어 보신 분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말이 안 된다 싶은 게, 책이 있어야 읽죠. 프랑스어를 잘하시는 분들, 영어본, 독일어본을 볼 수도 있겠지만, 프루스트가 번역되느냐의 문제. 프루스트의 맛을 들이마실 수 있는 번역본이 한 국가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앙드레 모루아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프루스트 읽은 사람, 하나는 안 읽은 사람. 문화의 영역에서 보면 지구에는 두 개의 국가만 있는지도 모릅니다. 프루스트가 번역이 잘 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일본은 번역이 그렇게 잘 되어 있다고 해요. 너무 부러워요. 수업을 하면서 계획 중의 하나는 필요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번역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얘기할 레오니 고모의 방을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3-4페이지예요. 냄새에 대한. 그걸 번역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면 하루는 몽땅 바쳐야 하겠더라고요. 참 너무 어려운 작업입니다. 김창섭 선생이 번역해 놓은 것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달라고 하세요, 드릴 테니까. 근데 그것 도저히 쓸 수 없는 번역이에요. 다행히 민희식 선생이 번역한 게 있긴 한데, 이 책은 내러티브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묘사가 중요하거든요. 묘사의 측면으로 들어가면 읽을 수 없는 번역본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할 때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프루스트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합하면 40-50개, 줄이면 20-30개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번역 작업해 보는 게 참 좋겠다 싶습니다. 게르망트 공작부인을 묘사하는 부분, 할머니의 죽음 부분, 마들렌 추억의 부분, 알베르틴에게 키스하는 장면, 알베르트가 자는 모습을 관음증적으로 보는 부분, 뱅테이유(?)의 소나타 부분, 에스디어(?)의 그림 부분. 다는 못해도 그런 부분들만 빼내어서 붙어 잘하시는 분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물어보기가 곤란한 게 제대로 된 번역본이 있어야 그런 질문이 성립하죠. 가장 중요한 책은 제1권, <스완네 집 쪽으로>인데, 혹시 그것 읽어보신 분? 그림 수업이 곤란해집니다. 내용을 또 얘기해야 하니까. 전후 사정을 알고 계시면 직접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2차 문헌들은 읽어보셨어요? <프루스트와 기호들> 읽어보신 분?

어쨌든 제가 블로그를 알려 드릴 테니까 제가 번역해 놓은 텍스트 몇 개를 읽어보세요. 뽑아서 미리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횡단보도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블로그가 나옵니다. 프루스트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번역한 것, 메모한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프루스트는? 내 마음을 알기

많이들 오신 것 보면 프루스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특별히 문학 하시는 분 계세요? 다른 분들은 뭐 하세요? 인문학에 관심이 있으신가? 프루스트!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프루스트 전공자는 아닙니다. 독일에서 공부했으니까요. 그러나 프루스트가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컨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바르트가 말한 ‘생의 작은 고독들’과 만날 때, 성서를 읽는다든지 관음경을 읽는다든지 하실 텐데, 저에게는 종교가 없어서 그럴 때마다 프루스트를 꺼내 봅니다. 아무 테나 봐요. 그런 의미에서 프루스트는 저에게, 제가 위안이라는 말을 참 싫어하는데, 부끄러움 없이 위안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저 개인적인 취향과 맞는 게 있어서 그렇겠죠.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프루스트와 동시대인이지만 그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19세기를 얘기한 발자크 같은 이도 있죠. 발자크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겠죠. 저는 프루스트를 사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생각하고 있고, 위안을 받고 있고, 형용사를 붙였듯이 부끄러움 없이 위안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 사실 짜증 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신뢰를 가지면 위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어머니 같은 존재가 그럴 거예요. 신뢰를 갖는다는 건 상대가 나를 동정이나 우월감을 가지고 동정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럴 때 위안을 받습니다. 그런 책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아는 책.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라면, 이 텍스트가 아니라면 내 마음이 이런 줄 모르고 죽었겠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세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옛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구곡의 세계이기 때문에(무한한 계곡), 그 안에 들어가면 길을 잃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나 자신도 모르는 게 마음의 세계라고 한다면, 마음의 세계를 말하자면 우리가 욕망이 있어서 살면서 자기 마음이 무엇인지는 알고 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살면서 두 가지는 하고 가야 해요. 하나는 자기 마음의 세계를 알고, 둘은 내가 사는 세계를 알고 가는 거죠. 저승에서 심판을 받는다면 어떤 세상에서 살다 온 지 말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상 압니까? 우리가 세상에 개입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자꾸 싸우는 것 싫어서 조용히 있고 싶은데, 그러나 세상이 없으면 놀 수가 없어요. 꿈

그러지만 꿈은 세상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실현할 땅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떠나서 꿈꾸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 내 꿈이 구체화 되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사회 비판의식 가져야 된다고 자꾸 주장할 필요 없어요. 자기를 귀중하게 생각하면 사회 비판의식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저도 피곤하지만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 같은 몽상주의자도 없는데, 저도 나중에 배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루스트에게 살롱이라는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을 통해서 꿈이 구축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루스트는.

감각을 깨우기

어쨌든 내 마음을 알기. 또 하나는 프루스트가 없었더라면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 줄 몰랐다는 사실, 감각이 문제입니다. 우리 세포 감각이 얼마나 무한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감각 세포를 지배당하고 있어요. 미적 규범들에 의해서. 이런 것은 아름답고 저런 것은 좋지 않다든지, 이런 게 향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무한한 감각의 총체가 거의 3분의 2는 사라졌을 거예요. 세 보세요. 몇 개나 되세요? 이 감각의 세계가 이렇게 단순해졌어요. 요즘은 호불호로 두 개로 나뉘 버렸어요. 좋으냐 나쁘냐. 이건 야만인들의 감각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개념의 세계에서. 프루스트는 감각이 얼마나 무한한지 알려줍니다. 읽다보면 감각들이 살아나는 걸 통해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마다 그 책은 다르겠지요. 제 경우는 프루스트에게 항상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를 발견하기 - 면도칼 위에서 균형 잡기

더 중요한 거 하나. 프루스트는 그렇다고 저는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차이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 매몰 당하거나 맹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유한다는 건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자꾸 숨기려고 하거나 뭐와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리와 차이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우상을 섬기려 하지 말고 자꾸 강요되는 우상들을 과감하게 파괴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사유의 힘입니다. 사유는 힘이 지 섬세하게 생각하고, 논리 잘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사유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언제나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알게 만들었어요. 경계심을 준다는 거. 벤야민이 왜 프루스트를 두 번째 권만 번역하고 그만뒀느냐면, 프루스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자꾸 하다 보면 빠져들겠다 싶어서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벤야민이 쓴 책에서 가장 문학적이고, 감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글이라고 알려진 『19세

기 베를린의 유년시절』이라는 짧은 책. 프루스트가 없었다면 쓸 수 없었던 책입니다. 또 프루스트를 비판적으로 생산화했던 텍스트입니다. 독서는 그런 데 있을 겁니다. 아도르노나 프루스트 같은 사람들은 어린애처럼 빠져든다고 하죠. 모방. 그러나 모방하면서 동시에 빠져 나옵니다. 똑같이 되려고 모방하는 것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엄마와 아빠를 닮으려는 것은 같아지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되려는 겁니다. 그들과 다른 자아, 개인, 개체. 그래서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따라가고 빠져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꾸 뒷걸음질쳐야 합니다. 언제나 이 미세한 거리,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의 긴장 관계죠. 너무 넓으면 완전히 벗어나 버려요. 너무 가까우면 빠져 버려요.

‘면도칼 위에서 균형 잡기’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면도칼을 영역화할 수 없잖아요. 칼날, 손만 대면 베이게 되는 영역. 빠지지도 멀어질 수도 없는 거리예요. 이걸 거리라고 할 수 있을지. 하도 짧아서 시간이 연장성을 가지지 못하는 걸 우리는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은 연장성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짧아서 쥌 수 없는 시간의 단위를 순간이라고 하죠. moment. 거리에든 moment가 있어요. 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거리를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인문학을 한다는 건 비평정신을 가지는 것인데, 그건 바로 이 거리를 지키는 겁니다. 무작정 예외적 포지션을 가지고 자신은 한국사람이 아닌 것처럼, 돈 안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떠드는 건 순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는 인문학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바보입니다. 개인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세상과 나라는 사이에서 순간이라는 이름의 어떤 거리를 갖는 것, 철저히 세상에 대해서 통찰하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가질 수 있는 그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또 얼마나 멋있습니까?

스놉 프루스트, 그의 예술론, 역사의식

프루스트와 만나는 방식도 바로 그런, 한편으로는 어린애처럼 끌려들어 가는 게 필요할 거고 그러나 우상 숭배는 안 됩니다. 스놉, 19세기 소시민 계급이 가지고 있었던 저주 같은 타락의 상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프루스트는. 평생 귀족살롱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다고요. 공작부인, 대공에 대해 상상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철저히 비판할 필요가 있고요.

프루스트의 예술론이 있는데, 회화, 음악 부분의 글이 보편성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역사의식(사회 비판의식은 있는데)이 부재한다는 것. 역설적인 것은 그가 태어난 해가 1871년인데, 그때 그 유명한 ‘코뮌리즘’ 사건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프랑스가 그때 위기 상태였죠. 시민전쟁, 독일과의 전쟁, 복고왕정. 드레퓔스 사건. 혼돈의 시대였는데, 그

물속에서 태어났는데도, 역사의식(역사의식의 부재)이라는 점-벤야민도 비판하는 프루스트의 측면이지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해 봐야 합니다. 프루스트는 역사의식이 부재했는데, 스스로도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더라면 이런 작품도 나오지 않았겠지만, 자신은 시대의 혼란 속에서 태어나서-그때 이사를 많이 갔고, 도망도 다녀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몸이 이렇게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10살 때 터진 천식.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프루스트의 약점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무목적적 목적성이다

되도록 사적인 얘기를 빼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독서의 의미 중 미메시스. 어린애처럼 그냥 읽는 거예요. 목적지향적이지 않아요.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게 아니라. 저도 그 추억이 그립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런 독서가 있었잖아요. 유년기나 사춘기 아니면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린 더 이상 그런 독서를 못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강의하려고 독서를 하고, 오늘 가서 무슨 얘기할지 읽다보면 짜증 나기도 합니다. 그냥 옛날같이 무목적적으로 읽고 싶어요. 칸트의 말처럼 무목적적 목적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행위 중에는 자기는 모르지만 목적성이 없으면 즉, 이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인간이랍니다. 왜냐면 생각이 있으니까. 동물은 다르겠지만. 문제는 목적성이 있어서 도달하는 목적지가 있고 목적성이 없이 도달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칸트는 다른 의미로 썼지만, 인용하자면 그렇습니다. 독서는 그렇습니다. 무목적적으로 읽으면 도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독서의 세계인데, 상실해버렸어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프루스트의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지요.

2교시

프루스트의 자서전으로서 읽기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자서전적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서전 문학이라는 게 있죠. 사르트르도 『말들』, 루소의 『고백론』 등. 자서전은 좀 말이 안 되죠. 고백인데요. 살아온 걸 그대로 쓰겠다는. 그런데 고백의 욕망은 사실 은폐의 욕망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이 작품도 한편으로는 자서전 문학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프루스트 자체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그렇게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71년 태어났고, 1881년 10살 때 병이 나죠. 병자로서의 자신이 나옵니다. 항상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마들렌 체험 이전에도 오늘도 우울한 하루를 보내고 내일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을 때 그런 산책에서 돌아온 어느 겨울날, 엄마가 차를 마시고 빵을 먹으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마들렌 체험을 생각할 때 환희도 중요하지만 배경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라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보면 항상 두 가지 걱정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걱정. 또 하나는 자신이 글을 쓸 수 있을까라는 걱정.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 많은 걸 써 놓고 이러죠. 이제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데 시간이 남아 있을까 하고. 독자들이 여기까지 읽으면 완전히 습작을 읽은 느낌이 들죠. 속은 느낌. 하하하. 아나톨 프랑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짧고 프루스트는 길다고. 하하하.

10살에 찾아온 천식, 성적체성

어쨌든 10살에 찾아온 천식이 죽을 때까지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위생학 교수이고 의학사에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천식을 고치지 못했어요. 지금도 천식은 잘 안 고쳐지죠. 콩브레라는 중요한 장소가 나옵니다. 여름마다 휴가를 떠나는 곳. 그곳의 일리히라는 마을, 아버지의 큰 누나인 레오니 고모가 살던 곳. 오늘날에는 가보면 프루스트의 콩브레라고 적혀 있대요. 관광지가 되어서요. 15살 때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또 몸이 약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가 힘들었는지, 요즘도 있는 집에서 사립학교 보내는 것처럼, 한편으로 가정교사를 두고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1888년, 17-18살 사춘기, 성적 정체성이 생기는 시기, 그때 자신이 호모섹슈얼리티의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9세기가 뭐니까? 전통적인 도덕, 가부장제로 가득 차 있었던, 한편으로는 자본주의로 치달으면서도 도덕, 경건주의, 종교성 같은 것들이 시민도덕으로 그대로 옮겨가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동성애 문제는 입 밖에도 낼 수 없었죠. 만일 글쓰기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숨기는 것이라면(무의식적으로), 바로 이 동성애적 정체성을 문학적으로 숨기기 위한 글쓰기입니다. 인물 중에 샤를리스가 있는데요. 그가 동성애를 대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샤를리스 장면에서 보면, 동성애자들이 서로 알아보는 세계, 이성애자들은 결코 가지고 있지 않은 관음증, 동물적 알아보기의 시선. 더 재밌는 건 그들만이 서로 같은 종족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언어유희. 이건 이성애라는 시스템에서는 결코 통용되지 않는 기호 유희입니다. 어쨌든 프루스트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글쓰기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소르본에서 아버지의 강요로 법학을 전공하지만, 사실은 철학, 문학 강의를 듣습니다. 그때 영향받은 사람이 베르그송입니다. 기억의 문제에 들어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큰 차이가 있죠. 베르그송과 연결선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거리가 있죠. 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철학과 문학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철학이라는 건 보편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문학은 아무리 보편성을 추구하려 해도 프루스트 세계처럼 끊임없이 파편화됩니다. 왜? 개체가 중요하니까요. 작은 것들, 부분들, 이게 그렇게 귀한 걸 어떡합니까? 전체를 지향하는데 밑에서는 자꾸 와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 미완성입니다.

그때쯤 해서 어쨌든 살롱을 드나듭니다. 1892년부터 1905년까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해). 그 사이에 드레퓀스 사건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전체가 웅성웅성 거리죠. 지식인들 사이에, 특히 에밀 졸라라 들고 일어나서 프루스트도 가담하고요. 정치적, 사회적 참여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글쓰기를 좀 합니다. 4년 동안 쓰다가 포기한 작품이 있어요. 1903년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관계가 중요해요. 프루스트에게 누군가 왜 그렇게 글을 쓰려고 하느냐고 묻자 자신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프루스트는 무적격자입니다. 동생 로베르트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프루스트는 언제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쳤다는 건 아니고. 마치 고문관 취급을 한 거죠. 너무 바보가 되면 그냥 놔두잖아요. 하하하. 그런데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한이 쌓이겠어요? 자식 구실을 못한 거니까. 이런 것 말고도 아버지 문제는 한 번 나오죠. 은총을 내리는 장면. 오늘 밤 그래 엄마하고 한 번 자라고.

엄마의 죽음 뒤 침실로 들어가다

2년 뒤 엄마가 돌아가시죠. 1905년. 2년 동안 심하게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집이 너무 커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에 침실을 마련해서 그 후로 14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온 방을 코르크 마개로 막고, 빨간 커튼 두 개 치고, 종 하나만 침대 위에 매달아 놓고, 가끔 외출은 했지만 그럴 때마다 오버코트를 입었습니다. 여름인데도.

그 사이에 아고스텔리(Agostelli)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운전사인데요. 이 청년에게 홀딱 반합니다. 그래서 빠지는데 돈도 많이 주고 그랬습니다. 청년이 그걸 알고 애인도 있었어요. 어쨌든 프루스트가 이용도 좀 당합니다. 아고스텔리는 결국 비행기 조종하다 추락사 당하는데 프루스트는 3년 정도 그것 때문에 우울증을 겪습니다. 작품 속에 알베르틴이 나오는데, 그녀가 레즈비언이잖아요. 사실 추적해보면 그녀는 아고스텔리의 여성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출판이 어려워서 자가 출판을 하게 되고, 앙드레 지드가 하던 유명한 출판사가 있는데, 사실 지드가 첫 줄도 안 읽고 돌려보냈다고 하죠. 3개월 뒤에 돌려보냈는데, 프루스트가 그걸 보고 한 줄도 안 읽은 걸 알았대요. 끈으로 묶은 부분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지도가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그 이후에는 지드가 프루스트를 상당히 도와주려고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앙드레 지드가 만일 이 책을 읽었다면, 특히 샤를리스 나오는 부분 읽었으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지드도 동성애자잖아요. 맨 처음만 읽으면 그냥 징징거리는 아이 얘기 같잖아요. 어쨌든 14년 동안 글을 쓰면서 전반부 4권은 자가출판합니다. 나중에는 명성을 얻었어요. 콩쿠르 상도 타고. 후반부는 쓰다가 중단되고 죽죠.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프루스트의 공간들

본격적으로, 프루스트의 공간들이라는 테마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재구성을 한 겁니다. 제 강의가 워낙 그렇습시다만, 일반 교양을 싫어합니다. 그걸 들으러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남들이 한 걸 또 하고 싶지는 않아요. 또 2차 문헌 읽어보면 충분히 아실 테니까요. 문학 사전에도 다 나와 있고요. 프루스트를 읽으면서 무의지적 기억은 그만하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했어요. 물론 중요하지만 꼭 그것만 얘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이 강의는 제 나름대로의 독후감 또는 독서 체험입니다. 모델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프루스트의 공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신비평에서 중요한 조르주 뵈레가 그렇습니다. 프루스트의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사람이죠. 저도 시간의 문제에 들어가면, 뵈레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언급했던 그리고 종교적인 것으로 넘어갔지만, 저는 오히려 종교와 분리해서 미지의 시간이라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프루스트에게 있어서 자꾸 기쁨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굉장히 행복주의자예요. 행복에 대한 맹목적 집착이 프루스트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벤야민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세상에 그 누가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집착하는지. 인생이 무슨 절대명제인 것처럼. 물론 우리도 그렇긴 하지만, 거의 노이로제 비슷하게 불행한 걸 참지 못하는 거지요. 그것 물론 하나의 능력입니다. 뭐든지 obsession이 되면 능력이 됩니다. 집착이 되면.

삼각형의 욕망

그런데 우리는 집착의 능력이 별로 없죠. 세상에서 좋다고 해서 좋아하려 하면 세상은 다른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새로운 상품이 나오니까요. 시장은 개인에게서 끊임없이 집착의 기회를 박탈합니다.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능력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그러면서 우리를 시장주체로 만듭니다. 나중에는 내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를 모르게 합니다. 이걸 르네 지라르로부터 시작된 ‘삼각형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것 있으세요? 독일 동화에 보면 요정이 나타나서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하면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진짜 좋아하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그런데 대체로 그 요정을 붙잡지 못합니다. 이 좋은 기회를 뭘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시간이 돼서 요정이 가 버리죠. 자기 욕망을 갖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다른 욕망에 관심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우리를 소비주체로 만들려고 하지, 그런 의미에서 욕망 주체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

니다. 이런 부분도 얘기하겠습니다.

프루스트의 공간들로 들어가서, 그의 삶 전체를 세 가지로 나눠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그렇듯, 유년이라는 시간이 있죠. 그런데 프루스트만큼 유년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50살엔가 죽었는데요. 짧은 생입니다. 이생을 크게 세 개로 나누면, 유년의 시기-어머니 품 속 공간, 다음으로 청년의 시기-살롱, 동성애, 마지막 시기인 늙은 고아의 시기-어머니 죽음 이후의 시기이므로, 그때 텃줄이 끊어지죠. 늙어서 텃줄 끊어지면 참 곤란할 것 같아요. 롤랑 바르트 비슷한데, 이 마지막 시기가 글쓰기의 시기입니다.

유년기의 공간

각 시기마다 특별한 공간들이 형성됩니다. **유년들의 공간-어머니 품 속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이 변주되면서 다른 몇 개의 공간이 나오는데, 하나는 **레오니 고모의 방**이라는 공간. 마들렌 체험 부분에서 나오는 그 환회. 그 환회가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을 하죠. 막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 외치면서 그 공간이 레오니 고모의 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레오니 고모의 집일까를 궁금해하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블로그에 번역해서 올릴게요.) 다음으로 게르망트 이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에서 이름은 엄청 중요한데요. 게르망트는 프랑스로 잘 안 쓰는 이름인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태고성 같은 게 있습니다. 아이는 뭔지도 모르는 그 이름을 가지고 상상의 공간을 만듭니다. ~망트. 그 음성성. 다름으로 질베르트를 만났을 때, 그 이름에 반해서. 또 고장의 이름, 동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게 고유명사잖아요. 고유명사 공간이 프루스트에게는 유년기뿐 아니라 나중에도 중요하게 나옵니다. 또 하나는 **독서공간**이 있습니다. 유년시절, 항상 골방에 들어가서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산책가라고 하거든요. 방콕하지 말고. 그런데 산책갈 때 책을 들고 가서 미루나무 밑에서 또 책을 읽습니다. 다른 공간도 찾아보면 있겠지만, 어머니 품 속이라는 가운데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이 변주를 일으켜 레오니 고모의 방과 이름의 공간으로 확장되다가 나중에 다시 어머니 품 속으로 수렴됩니다.

청년기 - 노아의 방주 공간

청년 시기로 넘어오면 저는 그걸 노아의 방주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보면 노아의 홍수 있잖아요. 죄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죠. 배를 하나 만들어서 필요한 동물들을 다 집어넣지요. 그 배 안에서 비둘기를 날려 보내잖아요. 비둘기가 날아갔다 아무 것도 못 들고 오죠. 아직 홍수가 안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잎사귀 하나를 들고 오죠. 물이 빠졌다는 거죠. 그 다음 날에는 비둘기가 날아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나가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기뻐하죠. 세상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프루스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기쁠까?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떠나면서 슬프지 않았다고 그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루스트는 노아의 방주를 두 가지로 봅니다. 노아의 방주는 청년 시기로 들어온 프루스트가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나와 자아를 형성하는 공간이죠. 자아 형성은 한편으로 기쁨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서글픈 겁니다.

비둘기를 엄마로 대응해서 얘기합니다. 엄마가 방주 공간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갔다가 결국 돌아오지 않죠. 이걸 아들에게 이제 혼자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그렇게 슬퍼합니다, 프루스트는. 행복에 집착하지만 중요한 테마는 프루스트의 근심, 걱정입니다. 늘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글퍼해요. 슬픔과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서글픔은 ambiguity예요. 뭔지 모르게 그냥 슬픈 것. 프루스트는 엄마의 품속에 있을 때는 너무 행복하지만 엄마가 책 읽어주는 목소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러운 슬픔이라고. 이게 서글픔입니다. 말이 참 멋있죠. 이 서글픔이 4천-5천 페이지 가까운 이 작품 밑에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지하수예요. 서글픔의 지하수. 죽음으로부터 오고 있는 위협, 글을 쓸 수 있을까라는 능력에 대한 불신, 또 하나 더 어머니 문제와 관계는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시간의 문제와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살롱의 공간

살롱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선의 훈련을 받습니다. 거짓말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게 돼요. 엄청난 질투, 암투, 허영을 직접 체험하면서 난수표 구분하는 법을 배웁니다. 물론 이 시기는 허송세월이죠. 그런데 이 허송세월의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 제목의 마지막 권 제목이 <다시 찾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의 건너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글쓰기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있고 다시 찾은 시간이 있다면 그 사이에는 찾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프루스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 글쓰기 자체가 찾아가는 시간이라는 거. 이 시간은 단순히 기억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얘기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늙은 고아의 공간

그리고 늙은 고아의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은 첫째로 오버코트의 공간입니다. 여름날 더운 날에도 오버코트를 입고서 사람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이 모피 코트. 그 안에는 몸이 있죠. 그렇게 강박적으로 코트를 뒤집어쓰는 건 왜일까요? 보호하려는 게 있으니까. 자신의 몸. 건강의 육체만이 아니라 다른 육체가 있습니다. 그 몸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침대의 공간

그리고 너무도 잘 알려진 오래된 침대의 공간이 있습니다. 첫 문장이 이렇죠. “나는 오래 전부터 일찍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들어가서 반수면 상태에 빠집니다. 잠들과 깨어남. 저 밑바닥으로 하강했다가 다시 부상하는 운동, 음악 공간, 리듬 공간. 왜 오래되었다고 얘기할까요? 잘 아시겠지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기억의 대화소설 오래된 침대에서 쓴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구강 공간 - 마들렌 사건

많은 사람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마들렌 사건이 있죠. 차와 마들렌이라는 과자가 만들어내지만 이 사건은 구강 공간에서, 입안에서 일어납니다. 여기는 향기도 있고 맛도 있고, 은밀한 접촉이 있어요. 내부 피부와의. 이걸 결코 외부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만나지 못하죠. 오로지 이 공간은 나만의 것입니다.

이 세계가 아무리 우리를 보편적 인간으로 만들려고 해도 우리의 성적 기관의 피부나 내장 기관의 피부는 똑같이 만들 수 없습니다. 왜 입안 공간일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곳은 총체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차와 향기, 과자, 미각이 있죠. 후각도 있죠. 촉각도 있습니다. 만지는 촉각이 아니라 용해되는 촉각. 그리고 그 안에서 녹아 버리고 있는, 특히 에로티시즘이 있죠. 저의 바르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단어를 제가 보편적으로 안 쓴다는 걸 아실 텐데요. 굉장히 음란한 의미에서 입속 공간은 사실 성적 기관입니다. 어린 마르셀(프루스트)가 독서할 때 책 읽다가 오나니(자위)를 하는데요. 독서 공간이 바로 구강 공간이에요. 독서는 문자예요. 그런데 오나니는 절대적 육체성이예요. 그런데 묘하게 그것들이 하나로 겹쳐요. 그게 독서예요. 독서는 문자 읽기가 아닙니다. 어떤 다른 세계가 일어나고 미지의 여인과 만나고, 이 미지의 여인도 나중에 알베르틴 부분에서 보면 하나가 아닙니다. 집단의 여자예요. 집단의 여자를 원하는데 그걸 한 여자에게서 가지려고 하니 질투가 벌어지죠. 입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사건은 단순히 무의지적 기억의 놀라운 환희라고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프루스트가 이제 글 좀 쓰겠다고 다시 살아나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그 환희의 감각 때문만이 아닐 거예요. 이 구강 공간에는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혹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다 얘기하려니까, 프루스트가 처음에는 두 권으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쓰다 보니 끝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증식돼요. 들뢰즈가 말하는 리즘. 줄기식물은 하나가 박히면 끊임없이 번져 나가죠. 텍스트의 의미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나중에 *écriture*라고 합니다. 소설이 그래서 끝날 수 없는 거예요. 더 살았으면 제가 볼 때 더 썼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게으르게 뭘 하다가도 마감이 있어야 끝나잖아요. 마감 없으면 안 끝납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나는 왜 이러냐고 하면 곤란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인생도 그래요. 마감 있으니까 뭘 열심히 하고 그러지요. 죽음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안 할지 모릅니다. 이 구강 공간이 프루스트가 도착하는 마지막 공간입니다.

다시 찾은 시간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아마 프루스트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무의지적 기억의 놀라운 체험을 한 다음에 이 얘길 쓰면 두 권이면 되겠구나 하고. 그런데 쓰다 보니 무의지적 기억이라는 것이 현상적으로는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왜 기쁜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나눠 드린 거 보세요. 5페이지. 일부러 사선체로 표시했습니다. 이 부분 얘기 별로 들 안 하는데요. 이 안에 뭔지를 모른다거나 알 수 없다, 모르겠다는 말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세요. 엄청나게 기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들뢰즈도 포착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기쁨이 차와 과자로부터 출발하는 건 맞죠. 그런데 이 기쁨이 여기로 수렴되진 않죠. 유발하기만 할 뿐. 차와 과자에 기쁨이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경험하면 그게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가지려 하죠. 이게 주물성입니다. 패티시즘 얘기하잖아요. 명품? 그걸 가지면 그 안에 뭔가 있으니까 가지려는 겁니다. 그런데 차와 과자가 그걸 유발하기는 하나, 그 이상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명품은 보는 걸로 충족되는 거예요. 명품성이라는 건 그런데 그것 속에는 없어요. 다른 데 있죠. 내가 만드는 그 속. 폴 발레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젊은이들이 명품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발레리가 일침을 놓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젊은 친구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것이다. 젊음이란 끊임없이 새로움을 사랑하는 능력이고 에너지다. 그런데 명품이란 이미 완성되어서 끝난 것이다.” 안 맞는다는 얘기죠. 명품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 조로증 걸린 거나 마찬가지로요. 새로운 걸 원하는 걸 포기한 거죠. 정확하게 지적했죠. 20세기 초 사람인데. 철저한 현대정신이 있죠. 프루스트가 끊임없이 착각하고 있는 게 소유개념인데요. 질투가 참 웃기죠. 그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줍니까? 알베르틴에게서 느끼는 기쁨. 그런데 그건 알베르틴에게는 없죠. 마르셀은 그게 알베르틴에게 있는 줄 알고 자꾸만 붙잡으려고 하고 알베르틴은 빠져나가려고 하죠. 중요한 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어떻게 줍니까? 열어보면 없으니까 질투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죠. 오데트가 스완에게 상처받는 것도 그거고요. 프루스트가 말하는 기적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대상 속에 그 대상이 유발시키고 있는 것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그건 예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을 포기하고 예술로 돌아서는 겁니다. 어쨌든 무의지적 기억 체

힘에서 기쁨을 느끼지만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의지적 기억은 출발입니다. 문제를 꺼안은 순간. 다음부터는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 그것이 글쓰기입니다. 살롱에서 화랑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미술과 음악과 회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다니는 길, 바로 그겁니다. 다시 찾은 시간. 나중에 읽어 보세요.

그래서 이 기쁨이 레오니 고모가 나에게 주곤 하던 보리수 추와 마들렌 과자 맛인 줄은 알았으나, 나는 아직도 왜 이 기억이 그토록 나를 기쁘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고, 그걸 캐묻는 걸 한참 뒤로 미루었다.

프루스트 글은 놀라울 정도로 감각적입니다. 예를 들면 완두콩 공주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지성적입니다. 분석하고 찾아 들어가는 것이 탐정 같아요. 어떨 땐 너무 집요하다는 생각도 해요. 극도의 지성과 극도의 감각이 함께 가는 거예요. 문자-지성과 육체. 이 기원이 어머니 품속 공간에 있습니다. 마마보이라고 하죠, 프루스트를.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프루스트가 문자와 육체를 알았어요. 그거 붙들고 평생 사는 거예요. 아는 게 죄라고. 근친상간 욕망 얘기는 그만 합시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얘기도 그만 하고 다른 영역으로 문제를 옮겨 가야죠.

독서는 연주다

프루스트에게 음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문자와 육체관계를 아무런 갈등 없이 경험하게 하죠. 벵테이유의 소나타.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악보예요. 독서는 연주하는 겁니다. 악보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연주는 아무나 하나요? 얼마나 훈련을 쌓아야 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걸 독서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독서는 한편으로 연주술을 배우는 것이면서 동시에 연주하는 겁니다. 프루스트는 그 일을 독자에게 떠넘깁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프랑스 독자들도 그러더라고요. 독일에서 공부할 때 우연히 그런 애길 했어요. 독일 친구 하나, 프랑스 친구 하나. 독일 친구가 1년 반을 걸려서 다 읽었다고 했어요. 프랑스 여자에게도 다 읽었다고 해요. 저는 하도 답답해서 읽어봤어요. 너희들은 한 번 읽으면 다 아냐고. 저는 세 번 읽고 네 번 읽어야 하는데. 저는 그래서 프루스트 다 읽었다고 말 안 합니다. 물론 번역본을 다 읽었지만. 어쨌든 독일 애도 그렇고 프랑스 애도 그렇고 한 번에 읽히지 않았다고 했어요. 두 번씩 읽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프루스트 읽기는 통찰력의 훈련과정이다

어쨌든 프루스트를 읽는 건 독서의 훈련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엄청난 선물을 가져

다줍니다. 자기 감각의 발견, 놀라운 탐정의 시선, 예컨대 거짓말 간파가 뭔지를 알게 돼요. 다 나옵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가 남자 속이려고 한마디 하면 그게 왜 탄로나는 지 금방 압니다. 읽어보면 진짜 맞습니다. 한마디만 하죠. 오테트가 스완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멋지게 해야 하잖아요. 거짓말을 잘하려면 슬쩍 실재를 끼워 넣어야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열 개의 조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9개가 현실감이 있도록 1개를 실제로 집어넣습니다. 이 한 개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진실 10조각 중의 하나입니다. 이거 딱 하나 꺼내서 9개랑 붙이면 붙습니까? 예를 들어 접시가 10개의 조각으로 깨졌다고 합시다. 그 한 조각은 9개랑 딱 맞는 곳에 붙여야 합니다. 거짓말 탐정은 이걸 밝혀냅니다. 애인을 의심하는 사람처럼 귀가 밝고 눈이 밝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걸 가르칩니다, 프루스트는. 이걸 통해 배운 이 시선은 탐정 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물 관계를 통찰하게 합니다. 아무도 못 보는 걸 다 봅니다. 섬세해집니다. 그래서 제 독서체험이 프루스트 아니라면 없었을 거라고 고마워하는 겁니다. 오늘은 공간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훑기만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공간과 시간을 엮어서 세부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개의 테마, 사랑, 질투, 동성애, 죽음의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 맛보기 강의 비슷하게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록]

M. Proust 1강: 프루스트의 공간들

1.1. 유년의 공간들

1) <어머니 품 속 공간 (I/ 234)>

- 유년의 침대: 불면과 굶나잇 키스
- ‘그날 밤’: 모테로의 귀환
- 육체와 문자의 공간
- 문자와의 만남: 의미가 아니라 어머니의 목소리
- 문자를 듣기
- 문자와 음악: 검열, 몽상, 이름 (Francois le Champi)
- 텍스트의 생성 그리고 주체적 세계
- 기쁨과 서글픔의 밤

2) <레오니 고모의 공간 (I/ 90ff.)>

- 레오니 고모의 공간 수렴성: 점점 밀폐된 공간으로의 이동선에 대하여
- 시간의 이중성에 대하여:
시간의 소멸성: 레오니 고모의 육체
시간의 저장성: 사라지지 않고 축적된 냄새들
- 냄새들과 은밀한 욕망 그리고 보리수차
- 레오니 고모의 ‘빈 이마’

3) <게르망트 이름의 공간>

- 언어 습득의 시기
- 아담의 언어
- 언어를 의미가 아니라 이미지로 보기

4) <여름 날 독서의 공간>:

- 듣기와 보기가 읽기로: 어머니의 목소리와 게르망트의 이름
- 풍경들, 미지의 여인들 그리고 오나니

1.2. 청년의 공간들

1) <노아의 방주 공간>

- 1896년 <기쁨들 그리고 나날들> 출판
- 기쁨들 그리고 서글픔 ('서글픈 밤')
- 노아, 비둘기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 “소생하는 세상을 기뻐하면서도 방주를 떠나야 하는 노아에게 일말의 서글픔이 없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2) <살롱의 공간 (1892-1905)>

- 허송세월의 공간
- 스노비즘: 계급, 허영, 질투, 거짓말의 백화점
- 시선 교육의 공간: 몽상의 시선, 관음의 시선, 탐정의 시선

1.3. 늙은 고아의 공간들

- 1903년 아버지 사망. 1905년 어머니 사망

1) <오버코트의 공간>

- ‘cordon sanitaire’: ‘피부 없는 인간’ (Adorno)
- Deleuze의 ‘거미’
- 육체: 잃어버린 시간들의 아카이브

2) <오래 된 침대의 공간>

- 반수면 공간: 잠들음과 깨어남 사이
- 텍스트 공간: 육체와 문자 사이
- 기억의 공간: 파편적 기억과 총체적 기억 사이
- 임종의 공간: 삶과 죽음 사이

3) <구강의 공간>

- 무의지적 공간: 차, 마들렌, 기억의 연금술

- 육체, 문자, 인상의 총체적 기억
- 생의 계시와 미지의 법칙

1.4. 소설의 공간

- 시간, 추억, 예술 속으로
- 읽기와 쓰기
- 작품과 *écriture*

.....

“ 독자에게 호기심을 깨우고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의 오묘함 (Kunstgriffe der Erzählung)은 마음의 동요와 멜랑콜리를 가져다주는 그 어떤 묘사 방식 (eine gewisse Art der Darstellung)에서 오는 것이었고 그 묘사 방식 안에서 어느 정도 독서의 이력이 있는 독자들이라면 모든 소설들이 본질로 지니는 그 어떤 공통적인 것 (etwas allen Romanen Gemeinsames)을 알아볼 수 있는 법이다. 그러한 이야기의 비밀스러움이 ‘프랑스와 르 샹피’에서도 느껴졌는데, 그건 물론 내가 한 권의 새로운 책을 수많은 비슷한 책들의 하나가 아니라 그것만의 존재를 지니는 유일한 것으로 늘 받아들이는 때문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러한 ‘프랑스와 르 샹피’의 비밀스러움은 다른 아닌 그 책만이 지니는 아주 특별한 본질적 생명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다”

“샹피라는 이름은 낯설면서도 그 발음이 기분 좋은 것이어서, 왜 그런지 분명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이름의 주인인 소년을 무언가 생생하고 따뜻하고 매혹적인 울림 (Toenung)으로 감싸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러운 부드러움과 달콤함을 (die natuerliche Zaertlichkeit und die weiche Suesse) 그러한 부드러움과 달콤함을 갈구하는 문장들 안에 붙여넣었고 그러면 그 문장들은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를 위해서 쓰여진 것처럼 어머니의 감정들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미묘한 뉴앙스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흘러가는 것이었다. 책을 읽어

주는 어머니의 목소리 안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울림 (der herzliche Ton)이 있었는데, 그 울림은 (어머니가 혼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문장들 속에 처음부터 잠재해 있던 바로 그 울림이어서, 어머니는, 비록 문장 속의 단어들이 분명하게 그렇게 지시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책을 읽어가면서 그 울림을 문장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 같았다. 바로 그 울림으로 어머니의 목소리는 동사형이 사용될 때 생기는 거친 단절 (jede Rauheit in der Verwendung der Zeiten)을 끊어짐 없이 이어주고, 모든 과거형의 문장들을 (어머니의)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부드러운 위안, 부드러움으로 감싸인 조용한 슬픔 (die leise Trauer der Zaertlichkeit)으로 감싸이게 했는데, 그건 다시 말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음절의 말미를 혹은 빠르게 혹은 느리게 읽는 방식으로 음절들의 길이를 일부러 무시하고 그 음절들에게 동일한 리듬을 부여하면서 그 리듬을 통해 끝이 나는 문장들을 끝나는 일 없이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문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었고, 다름 아닌 그 이어짐이 사실은 아무런 특별함도 없는 평범한 문장들을 끊임없이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생생한 산문으로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내가 한 밤중에 깨어나 콩브레를 생각할 때 내게는 다만 그 유년의 조각들, 그러니까 깊은 어둠에 둘러싸인 단편들만이 (nur einen von tiefer Dunkelheit umlagerten Ausschnitt davon) 눈 앞에 떠오를 뿐이었다...”

.....

“수년 동안이나, 매일 밤 벌어지던 내 취침의 광경과 드라마에 대한 기억을 제외하면, 콩브레는 사실 내게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던 어느 겨울 날, 내가 몸이 뽁뽁 얼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차를 싫어하는 내 버릇을 잘 알면서도 차 한 잔을 마시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나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왜 그랬는지 나 자신도 잘 알 수 없는 채로, 생각을 고쳐먹었다. 어머니는 차 한 잔과 함께 마들렌이라고 불리는 조개 모양을 본떠서 구워 낸 통통하고 달걀처럼 동그란 과자 한 조각을 가져오도록 시켰다. 울적했던 오늘 하루와 역시 쓸쓸하기만 할 내일의 날들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진 채, 나는 어머니가 시키는대로 부드러운 과자 한 조각과 함께 차 한 모금을 입 안으로 가져갔다. 그런데 그때, 과자 맛과 섞인 차 한 모금이 입 안 천정에 닿는 순간, 나는 깜짝 놀라서 몸을 떨었다. 알 수 없는 낯선 어떤 것이 내 안에서 생겨나서 나를 주문처럼 사로잡았다. 다른 느낌들과 전혀 섞이지 않은 채 다만 그 자체만으로 다가오는 어떤 느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채로 온 몸을 가득 채우며 몸 안을 지나가는 그 느낌은, 전에는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는 그런 온전한 행복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게는 삶 속에서 벌어지는 다사다난한 일들이 아무래도 좋은 것들만 같았고, 그 일들이 가져오는 이러저러한 불행한 사건들 또한 사실은 아무런 해도 가하지 못하는 거짓 불행인 것처럼 여겨지면서, (언젠가는 끝나게 될) 짧은 생의 시간마저도 잘못 된 감각 때문에 생기는 착각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마치 사랑처럼 내 안에서 (in mir) 일어나 번져가는 그 행복감과 더불어 나는 나 자신이 그 어떤 귀한 생명의 정수로 (eine koestliche Substanz) 가득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아니 그 생명의 정수는 내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 생명의 정수 자체였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 그저 우연히 태어나서 살아가는 무의미한 존재, 결국 나중에는 덧없이 죽어가고 말 그런 존재로 더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놀라운 기쁨은 어디로부터 내게 흘러든 것일까? 물론 그 기쁨은 차와 마들렌 과자의 맛과 관련이 있었지만 차와 과자를 넘어서는 어떤 것,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질의 어떤 존재였다. 그렇다면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도대체 그 기쁨은 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어디서 나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걸까? 다시 한 번 차를 마시자 그 느낌은 여전했다. 하지만 또 한 번 차를 마시자 느낌은 벌써 약해져 있었다. 어쩐지 차 맛이 지니는 비밀스러운 힘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나는 차 마시기를 그만두었다. 어쨌든 분명한건 내가 찾고자 하는 (기쁨의) 진실이 차 속이 아니라 다른 아닌 내 안에 있다는 (in mir) 사실이었다. 물론 그 진실을 깨워낸 건 차였지만 차 자체는 자기가 깨워 낸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저 짧은 동안, 그것도 점점 힘을 잃어가면서, 똑같은 말만을 반복할 수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차가 반복해서 하는 말을 나는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자꾸만 다시 차에게 말을 시켜보는 것이지만, 결국 반복되는 차의 말들로부터 결정적인 진실을 길어내야 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의 몫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찻잔을 아주 내려놓고 조용히 내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앉았다. 이제는 내 마음이 그 기쁨의 진실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불확실함의 감정이 무겁게 걸어 들어와서 내 마음은 갈수록 힘겨운 짐을 어깨에 지는 것처럼 어두워져 갔다. 그건 이제 진실을 밝혀야 유일한 탐구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스스로 확실치 않은 혼란스러운 상태 속에 빠져 있었으므로 그런 상태로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비들이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어서 진실을 탐구하는 일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사정이 그렇다면 찾기만 하는 일이 무슨 소용일까? 그래, 찾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스스로 창조해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은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무엇과 속수무책으로 마주 서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내 마음이 아

니면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이제 내 마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자신의 밝은 빛 안으로 끌어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기억은 의식으로 떠올랐다. (기억을 불러 낸) 그 마들렌 과자의 맛은 콩브레의 주일 날 아침, 레오니 고모의 방으로 아침 인사를 하러 가면, 고모가 홍차나 보리수윙 차에 한 번 담근 다음 내게 주곤 하던 그 마들렌 과자의 맛이였다. 여태까지 마들렌 과자를 수 없이 보았지만 아무런 기억도 떠오르지 않았던 건 내가 직접 그 과자의 맛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기억이 오지 않았던 건 그러니까 내가 이 과자를 식탁 위에서 여러 번 보았지만 맛을 본적은 없었기 때문이고, 그러는 사이에 그 과자의 이미지는 콩브레의 나날들과 점점 멀어져 덧없는 일상의 나날들 속에 묻혀버렸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추억은 오랜 세월동안 기억으로부터 차츰 사라지고 말아 (aus dem Gedächtnis verschwundenen Erinnerungen) 더는 아무 것도 추억할 수 없게 되었고. 모든 추억의 내용들은 완전히 지워져 까맣게 잊혀지고 말았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더불어 사물의 형태들, 말하자면 작은 조개를 닮은 마들렌 과자의 모양, 과자 표면 위에 그어진 엄격하고 경건한 주름 무늬의 의상 밑에 감추어져 있는 도톰하고 아주 관능적인 과자의 이미지와 같은 사물의 이미지들 역시 망각의 늪 속으로 깊이 가라 앉아 의식의 표면으로 밀고 올라올 수 있는 힘을 모두 잃어버리고 만 것이리라. 하지만 사람들이 죽어서 사라지고 사물들 또한 낡아서 사라지고 말아 (그들이 존재했었던) 지난 시간들 중에서 더는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냄새와 맛만은 (allein Geruch und Geschmack) 아주 연약하지만 그만큼 생생하게, 아무런 형태도 지니지 않지만 그만큼 지속적으로, 마치 헤메이는 영혼들처럼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그때의 모습 그대로,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기억하고, 기다리고 또 희망하면서,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린 폐허 위에서 혹은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그 어떤 존재 속에서,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저 기억의 측량할 길 없이 커다란 건축물의 그 어느 한 부분도 빼놓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자기 안에 간직한 채로 남아있게 될 것이었다 (...) 그러나 그것이 레오니 고모가 나에게 주곤 하던 보리수 차와 마들렌 과자의 맛인 줄은 알았으나, 나는 아직도 왜 그 기억이 나를 그토록 기쁘게 하는 지를 아직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이유를 캐물어 아는 일을 한참 뒤로 미루지 않으면 안 되었다.”